경상남도교육청

2026년 11월호(중학교) 독서교육 소식지

독서예보

다양성

목차

- 경남교육 전자도서관 이용 안내
- 경남교육 전자도서관 추천도서
- 이 책의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 교과연계 추천도서
- 교과연계 도움자료
- 깊이 있게 읽어보기
  : 『장애인이 더 많은 세상이라면』
- 작가와의 만남: 이란주, 김지우
- 이달의 행사
- 이달의 독서퀴즈



아이AI의 미래를 여는 경남교육

전자도서관을 소개합니다!

「아이AI의 미래를 여는 경남교육 전자도서관」은 12만 권 이상의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제별 추천 도서부터 이달의 맞춤 도서까지, 알찬 읽을거리가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 QR코드로 접속하여 이용하세요.

경남교육 전자도서관 바로가기	※ QR코드 이용 안내 인쇄물로 보실 때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스캔해 주세요. 모바일·컴퓨터로 보실 때는 QR코드를 클릭하면 해당 누리집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e-북 톡톡

경남교육 전자도서관 추천 도서

서로 다른 우리를 이어주는 따뜻한 문장들로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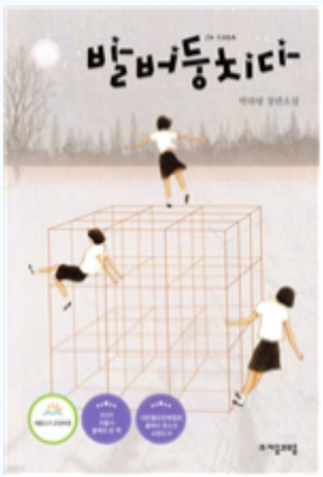




E-BOOK **『소리를 삼킨 소년』**, 부연정 글, 자음과모음, 2021

폭력과 상처로 마음을 닫아버린 중학생 도후의 이야기입니다. 도후는 집 밖에서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 '선택적 함묵증'을 겪으며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냅니다. 완벽해 보이지만 결핍을 품은 반장 '은호', 거칠어 보이지만 도후의 진심을 알아채는 전학생 '민재' 등 저마다의 상처를 가진 또래들을 만납니다. 세 소년은 진솔한 교류를 통해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마침내 소통과 회복의 길로 나아갑니다.

#소통과회복 #마음의상처 #성장소설 #공감과연대



E-BOOK **『발버둥치다』**, 박하령 글, 자음과모음, 2018

청각 장애인 부모를 둔 코다(CODA) 소녀 '유나'가 가족의 통역사이자 보호자로 살아가며 겪는 갈등과 성장을 그린 소설입니다. 유나를 비롯해 모범생 딸, 다둥이 집 장녀 등 저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희생과 기대에 갇혀 허덕이는 십 대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깊이 있게 담아냅니다. '가족'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찾아 발버둥치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전합니다.

#코다 #CODA #장애인이해 #가족의의미 #성장소설



E-BOOK **『나는 천사가 아니야』**, 고정욱 글, 나무생각, 2022

고정욱 작가의 동화 여섯 편을 통해 체벌, 장애, 다문화, 외모 차별 등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인권 문제를 다룹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을 돌아보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나의 인권도 지킬 수 있음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합니다. 각 이야기 끝에는 독후 글쓰기를 수록하여 인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애인식개선 #다문화이해 #차이와차별 #다양성존중

마음 톡톡

이 책의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다름을 품고, 서로의 세계가 넓어지는 11월

마음과 마음의 경계를 지우고,
저마다의 빛깔로 채워보세요.

이 책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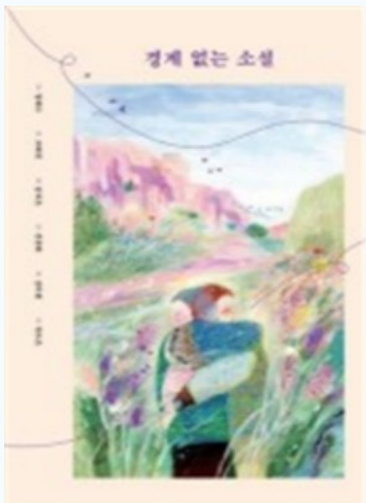


늦가을 서늘한 바람 속에서, 서로를 잇는 온기가 마음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책 소개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에 관한 단편 소설 6편이 담겨 있습니다. 한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사람들, 낯선 곳에서 새로운 터전을 일구는 사람들, 그리고 뿌리를 찾아 다시 돌아오는 이들의 여정 속에서 '우리'와 '다문화'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묻습니다. 이 책은 이방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를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그동안 그어 놓았던 경계가 연결의 시작점임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다문화 #연결 #이주와정착 #경계



「경계 없는 소설」
성해나 외 글
창비교육, 2025

이 책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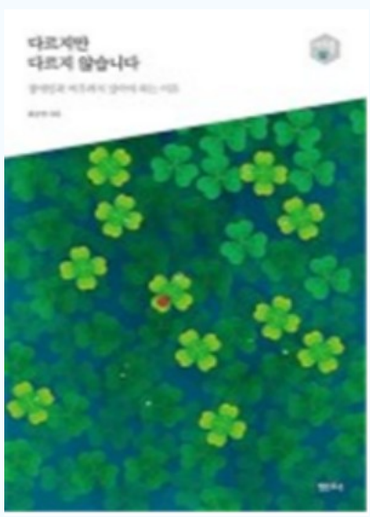


11월의 햇살처럼,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부드럽게 바꾸어 줍니다.

책 소개

아이에게 벼락같이 찾아온 장애로 '장애 아이의 엄마'가 된 저자가 10년 동안 겪고 깨닫게 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왜 주변에 장애인이 보이지 않는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울러 저자가 장애 아이의 엄마로서 희망 없이 살았던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도 풀어냅니다. 이 책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다음 세대의 생각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시선 #이해 #공존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류승연 글
샘터, 2018

배움 톡톡

교과연계 추천도서

배움의 즐거움이 쑥쑥 자라나요!

교과서 속 지식과 연결되어 배움의 즐거움을
두 배로 키울 수 있는 흥미로운 책을 추천합니다.

성취 기준

[9사(일사)01-03]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과 차별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처하는 시민의 자질에 대해 토의한다.
[9사(일사)02-03] 여러 집단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 사례들을 조사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하여 토의한다.



『장애인이 더 많은 세상이라면』
박윤영, 채준우 글
뜨인돌, 2023

장애인 윤영과 비장애인 준우가 연인으로 함께 살아가며 마주한 장애인 인권 문제를 두 사람의 시선으로 들려주는 책입니다. 학교, 이동, 취업 등 일상 속 차별과 편견을 실제 경험을 통해 보여주고, 장애를 개인이 아닌 사회의 환경과 제도 속 문제로 바라보게 합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생각의 변화와 시민의 태도도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합니다.

#장애인인권 #차별과평등 #장애인이동권 #시민의식



『있는 그대로 베트남』
강태규 글
초록비책공방, 2025

쌀국수, 오토바이, 아오자이처럼 익숙한 모습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베트남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첫 다문화 수업」 시리즈의 한 권으로, 역사와 음식, 종교, 축제, 교육과 생활문화를 따라가며 베트남을 입체적으로 만나고, 한국과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는 책입니다.

#베트남문화 #문화다양성 #다문화이해 #세계시민



『손으로 보는 나의 세계』
가시자키 아카네 글
작은코도마뱀, 2024

시각 장애 청소년 후타바와 타스쿠가 두려움을 딛고 한 걸음씩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폭언과 편견, 이동의 어려움 등 두 아이가 마주하는 현실을 따라가다 보면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시선과 환경의 문제로 바라보게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누구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 필요한 태도를 생각하게 하는 소설입니다.

#시각장애 #편견과차별 #함께사는사회 #다양성



『난민, 세 아이 이야기』
앨런 그라츠 글
밝은미래, 2019

나치 독일의 조셉, 1994년 쿠바의 이자벨, 시리아 내전 속 마흐무드. 서로 다른 시대와 나라에서 살아가던 세 아이는 삶의 터전을 떠나 새로운 곳을 향합니다. 긴박한 여정을 따라가며 난민이 겪는 두려움과 편견, 문화적 차이를 생생하게 느끼고, 낯선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난민 #문화다양성 #편견과차별 #세계시민

배움 톡톡

교과연계 추천도서

배움의 즐거움이 쑥쑥 자라나요!

교과서 속 지식과 연결되어 배움의 즐거움을
두 배로 키울 수 있는 흥미로운 책을 추천합니다.

성취 기준

[9도03-01]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도덕적 이유를 정당화하고,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탐구를 통해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인권 감수성을 기른다.
[9도03-02]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타문화·타종교·타인종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에 근거하여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열린 마음을 기른다.



『눈치게임』
정해윤 글
마음이음, 2023

다양한 세대와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시골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원래 살던 주민, 이주 노동자와 이주 여성, 중도입국 청소년 등 서로 다른 사람들이 부딪히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따뜻하게 그려냅니다.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이해하는 '눈치'를 통해 다름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과 공동체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 #시골마을 #더불어사는삶 #공동체



『윈더』
R. J. 팔라시오 글
책콩, 2023

선천적인 안면 기형으로 오랫동안 홈스쿨링을 해 온 열 살 소년 어거스트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하며 겪는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트는 낯선 시선과 편견 속에서 친구를 만나고 갈등을 겪으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 갑니다. 어거스트와 주변 인물들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소설 #시선과편견 #다름 #존중



『나는 미래를 꿈꾸는 이주민입니다』
이란주 글
한겨레출판, 2022

이주 노동자, 이주 배경 청소년, 결혼 이주민, 난민 등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24명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전문가의 시선이 아닌 이주민 당사자의 목소리로 자신의 삶과 꿈을 들려주어, 그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주민을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자 미래를 꿈꾸는 주체로 바라보며, 다문화 사회에서의 공존과 이해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주민 #다문화사회 #공존 #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아 외 글
봄마중, 2025

장애가 있는 청소년과 장애인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네 편의 성장 소설입니다. 장애를 숨기고 싶은 마음, 가족의 아픔과 변화, 보이지 않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 등을 청소년의 시선으로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과 함께, 어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아이들의 성장을 만나볼 수 있는 책입니다.

#장애인 #청소년 #성장소설

배움 톡톡

교과연계 도움자료

배움의 즐거움이 쑥쑥 자라나요!

도서관 활용 수업의 도움 자료를 소개합니다.

※ QR코드 이용 안내: 인쇄물로 보실 때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스캔해 주세요.
모바일·컴퓨터로 보실 때는 QR코드를 클릭하면 해당 누리집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로, 인권 침해 및 차별 관련 조사·결정 사례와 정책 자료를 제공합니다. 실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여 침해의 원인과 피해를 분석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사회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https://edu.humanrights.go.kr/academy/main/main.do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인권교육 사이트로, 인권·차별·혐오표현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자료와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책 속 차별 사례를 실제 인권 문제와 연결해 살펴보고,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시민에게 필요한 태도와 역할을 탐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https://www.unhcr.org/

난민과 강제 이주민의 인권 및 보호 문제를 다루며, 장애가 있는 난민처럼 여러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사람들의 상황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와 출신 국가,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차이가 차별의 원인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포용적인 사회의 필요성을 생각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UNHCR Teaching About Refugees - Ages 12-15

https://www.unhcr.org/uk/what-we-do/build-better-futures/education/teaching-about-refugees/teaching-materials-ages-12-15



유엔난민기구(UNHCR)가 12~15세 학생을 위해 제공하는 난민 교육자료입니다. 난민·이주민·국내실향민·망명신청자의 개념을 설명하는 애니메이션과 활동지, 또래 난민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 등을 통해 난민의 삶과 권리를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와 공존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배움
톡톡

교과연계 도움자료

배움의 즐거움이 쑥쑥 자라나요!

도서관 활용 수업의 도움 자료를 소개합니다.

※ QR코드 이용 안내: 인쇄물로 보실 때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스캔해 주세요.
모바일·컴퓨터로 보실 때는 QR코드를 클릭하면 해당 누리집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장애인먼저 실천운동본부 http://www.wefirst.or.kr/main/main.php

장애인먼저 실천운동본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활동을 소개합니다. 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학교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배려와 존중의 태도를 탐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https://www.naapd.or.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와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애인이 겪는 학대와 차별 사례를 살펴보고, 인권 침해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과 주변 사람 및 사회가 실천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탐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한국 점자 자료」
https://korean.go.kr/front/etcData/etcDataView.do?etc_seq=712&mn_id=208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공식 점자 자료로, 한글 점자를 비롯해 수학·과학·음악·외국어 점자의 표기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손으로 보는 나의 세계』와 함께 활용하면 시각장애인의 문자와 정보 접근 방식을 알아보고, 서로 다른 읽기와 소통의 방법을 직접 탐색할 수 있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EDUABLE) https://www.nise.go.kr/main.do?s=eduable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특수교육 지원 포털로, 중학생용 수업·영상 자료와 장애 유형별 학습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점자·데이지 자료를 비롯해 AI·SW교육, VR·AR, 보조공학 콘텐츠도 제공하여 장애와 교육 접근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탐구할 수 있습니다.

주제 톡톡

깊이 있게 읽어보기

「장애인이 더 많은 세상이라면」 리딩 가이드

익숙한 세상을 뒤집어 보며, 차별이 생기는 원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의 역할을 생각해 봅시다.



활용도서



『장애인이 더 많은 세상이라면』
박윤영, 채준우 글, 뜨인돌, 2023

INTRO 생각 열기

[내가 편한 세상은 모두에게도 편할까?]

학교에 가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식당에 들어가는 일은 누군가에게는 특별히 고민할 필요 없는 일상입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도 어떤 사람은 계단과 문턱, 이용할 수 없는 시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다른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 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위치를 뒤바꾼 상상과 두 저자의 실제 경험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회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생각해보기]

-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아무 고민 없이 이용한 장소나 시설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 그 공간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STEP 1 독서 전 활동

활동 1. "당연한 하루" 다시 보기

평소 자주 이용하는 공간 하나를 골라 '누구에게나 이용하기 쉬운 공간인지' 살펴봅니다.

살펴볼 공간	내가 이용할 때는?	누군가에게 장벽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학교 교실, 복도			
도서관			
대중교통			
식당, 카페			

핵심 질문 → 불편함은 사람의 몸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특정한 사람만을 기준으로 만든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요?

활동 2. 세상을 뒤집어 보기

책 곳곳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는 「장애인이 더 많은 세상이라면」이라는 짧은 가상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현실에서 장애인이 겪는 불편과 차별을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경험하도록 상황을 뒤집어 보여 주며,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사회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주변의 장소 하나를 골라 지금과는 다른 사람들이 사회의 기준이 된다면 그곳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봅시다.

내가 고른 장소:
달라진 모습:
그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문제:

→ 책을 읽으며 누구를 '기준'으로 사회가 만들어져 있는지 찾아봅시다.

주제 톡톡

깊이 있게 읽어보기

「장애인이 더 많은 세상이라면」 리딩 가이드

익숙한 세상을 뒤집어 보며, 차별이 생기는 원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의 역할을 생각해 봅시다.



STEP 2 독서 중 활동

활동 1. 차별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

책에는 교육, 이동, 시설 이용, 사람들의 시선 등 여러 영역에서 경험한 차별이 등장합니다. 특히 2부에서는 인권, 장애인 이동권, 시민의 태도까지 이야기가 확장됩니다.

읽으면서 기억에 남은 사례를 찾아 아래 표를 완성합니다.

책에서 찾은 사례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	원인은 무엇일까?	누가·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1.		태도 / 환경 / 제도 / 기타	
2.		태도 / 환경 / 제도 / 기타	
3.		태도 / 환경 / 제도 / 기타	

한 단계 더

세 사례 중 개인의 친절만으로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하나 골라 이유를 적어봅시다.

활동 2. 윤영과 준우, 두 개의 시선 따라가기

책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를 골라 윤영의 경험과 준우의 시선을 비교해 봅시다. 마지막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며 내가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생각이 달라진 점을 적어봅시다.

① 책에서 고른 장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책의 장면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② 윤영이 겪은 문제·느낀 점 윤영은 이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차별을 경험했나요?	③ 준우가 새롭게 발견하거나 깨달은 점 준우는 윤영과 함께하면서 이전에는 몰랐던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④ 내가 새롭게 보게 된 것 나는 이 장면을 읽고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었나요? 생각이 달라진 부분도 적어 보세요.

STEP 3 독서 후 활동

활동. 우리 학교의 '보이지 않는 장벽' 개선 제안서

윤영과 준우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계단과 문턱 같은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제도, 관습,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도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학교를 살펴보고, 누군가의 참여와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장벽' 한 가지를 찾아 개선안을 만들어 봅시다.

① 발견한 장벽	② 누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	③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④ 내가 제안하는 개선 방법

작가 톡톡

작가와의 만남

작가를 알면 책이 더 재밌어요!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의 든든한 곁이 되어,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그리는 이란주 작가 이야기



이란주 작가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이주노동자, 이주민과 연대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인권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곁에서 지켜본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의 삶을 기록해 왔습니다. 『말해요, 찬드라』, 『로지나 노, 지나』, 『이주노동자를 묻는 십대에게』, 『송싸이공 할머니 사총사』, 『우리 집에 가서 반미 먹을래?』 등을 집필했습니다. 낯선 세상에서 온몸으로 부딪치는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의 모습에서 용기와 지혜를 얻으며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출처: 채널예스 「이란주 "서로의 삶을 알면,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2021.01.08.), 예스24 작가파일, 교보문고 인물소개

송싸이공 할머니 사총사

이란주 지음 / 서해문집 /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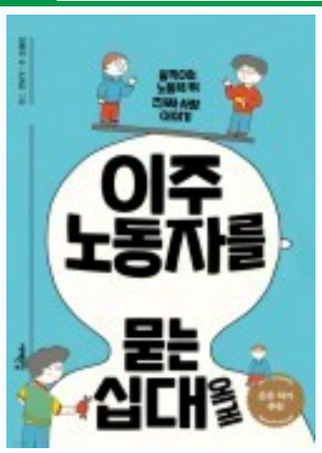


쌀국수와 반미, 베트남 식재료를 파는 가게 '송싸이공'은 한국말은 몰라도 위풍당당한 할머니들의 아지트입니다. 그곳에서 자라 그곳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열여섯 살 수아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다르게 볼 거 없어.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면 되는 거야."라며 베트남 할머니가 아니라 손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할머니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경계를 넘나드는 수아를 따라가다 보면, 활기 넘치는 일상과 무거운 주제를 아우르는 유쾌하면서도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란주 작가의 또 다른 책



「로지나 노, 지나」
이란주 글
우리학교, 2020



「이주노동자를 묻는 십대에게」
이란주 글
서해문집, 2021



「나는 미래를 꿈꾸는 이주민입니다」
이란주 글
한겨레출판,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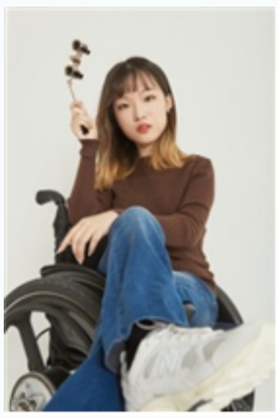
「우리 집에 가서 반미 먹을래?」
이란주 글
우리학교, 2025

작가 톡톡

작가와의 만남

작가를 알면 책이 더 재밌어요!

휠체어로 누비는 일상 속,
유쾌하고 단단한 변화를 만드는 김지우 작가 이야기



김지우 작가는 2017년부터 <굴러라 구르님 Rolling GURU>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인터넷에서는 '휠체어로 구르는 사람'이라는 뜻의 '구르님'으로, 현실에서는 김지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글코리아와 유튜브의 '유튜브와 함께 성장한 크리에이터 50인'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고등학생 때부터 장애 이슈와 관련해 활발히 활동해 왔습니다. 첫 산문집 『하고 싶은 말이 많고요, 구릅니다』를 비롯해 『오늘도 구르는 중』, 『우리의 활보는 사치가 아니야』 등을 썼습니다. 길 위에서는 가끔 자신이 그저 당연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고, 그 의심 없는 마음이 좋아 계속 구르며 세상을 누비고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출처: 채널예스 「유튜버 김지우(구르님)의 첫 산문집 인터뷰」(2022.06.30.), 예스24 작가파일

하고 싶은 말이 많고요, 구릅니다

김지우 지음 / 휴머니스트 / 2022



젊은 여성,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학생, 누군가의 딸, 자매, 친구로서 한국 사회에서 겪어온 일상과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재치 있는 농담으로 정곡을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깊이 있는 진심으로 큰 울림을 주며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정규교육과정에서 유일한 장애인이었던 경험, 장애 여성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을 때의 짜릿함, 공공장소에서 쏟아지는 무례한 시선에 대처하는 매뉴얼과 추가적인 이야기들까지. 한 사람이 사회를 살아가며 몸으로 겪어낸 기억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떻게 낯설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지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지우 작가의 또 다른 책



「우리의 활보는 사치가 아니야」
김지우 글, 휴머니스트, 2024



「오늘도 구르는 중」
김지우 글, 풀빛, 2024



「의심 없는 마음」
김지우 글, 푸른숲, 2025

행사 톡톡

이달의 행사

학교도서관 행사를 소개합니다!

숲속 서가를 누벼라!

'정글북 독서 스탬프 미션'

숲속 독서 천국,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에서 열리는 특별한 독서캠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연 속 13개의 색다른 독서 공간에서 책과 함께 마음껏 거닐고, 재미있는 독서 체험활동부터 아늑한 방갈로에서 친구들과 즐기는 밤 시간까지! 책장 사이를 누비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8가지 스탬프 미션

1. 시간 약속 미션: 시간을 잘 지키는 경우
2. 체크리스트 미션: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경우
3. 피라미드 미션: 피라미드 층별 책 제목을 찾아 모두 작성한 경우
4. 독서 중 미션: 가야산 독서당 안에서 독서시간을 가진 경우
5. 협동, 북토리텔링 미션: 조별 미션(북토리텔링)을 완성하여 발표하는 경우
6. 선물 획득 미션: '톡톡 키트' 지급
7. 보너스 미션: 정리정돈을 잘한 방갈로 팀에게 '매너상' 수여

행사 톡톡

이달의 행사

학교도서관 행사를 소개합니다!

숲속 서가를 누벼라!

'정글북 독서 스탬프 미션'





진행 방법

1. 캠프 본부에서 '정글북 독서 스탬프'를 받습니다.
2. 가야산독서당의 다채로운 공간을 탐험하며 미션에 자유롭게 참여합니다.
3. 미션을 완료할 때마다 지정 장소로 가서 스탬프를 받습니다.
4. 조원 모두 미션을 완료한 후 '방갈로 톡톡 키트'를 받아갑니다.

운영 팁

- 톡톡 키트: 스킨케어, 마스크팩 등 소소한 화장품, 밤에 먹을 간식, 보드게임이나 질문 카드 등 방갈로 안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용품이 담긴 '톡톡 키트'를 지급하여 밤 시간의 재미와 친밀도를 높입니다.
- 방갈로 매너왕 선정: 방갈로 이용 수칙을 잘 지키고 정리정돈을 잘한 방갈로 팀에게 '매너상'을 주면 더욱 깔끔하고 즐거운 캠프가 됩니다.

퀴즈 톡톡

이달의 독서퀴즈

키워드 퀴즈 1

『경계 없는 소설』 속 여섯 편의 이야기를 읽고,
각 작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키워드를 두 개씩 골라 보세요.



<보기>		
㉠ 정체성	㉡ 공동체	㉢ 이해
㉣ 뿌리	㉤ 난민	㉥ 공감
㉦ 소통	㉧ 다양성	㉨ 편견
㉩ 연대	㉪ 배제	㉫ 인권

1. 성해나 「괸당」
제주에 사는 '나'와 아버지는 북카자흐스탄에서 온 고려인 친척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4·3과 고려인 강제 이주의 아픈 역사를 마주한다.

2. 김다은 「내 이름은 프리」
한국에 사는 '나'와 미국에서 온 '변'은 언어의 장벽으로 마음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지만, 함께 테라코타 작품을 만들며 서로의 이야기를 이해하게 된다.

3. 한소은 「국경」
여섯 명의 사람이 원하는 삶을 찾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위험한 여정을 담은 작품이다.

4. 전춘화 「블링블링 오 여사」
한국에서 간병인 일을 하며 살아가는 조선족 '오 여사'를 통해, 조선족에 대한 익숙한 편견과는 다른 그들의 삶을 보여준다.

5. 조해진 「문주」
해외로 입양된 '문주'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온 한국에서, 자기 이름의 뿌리를 찾아간다.

6. 김이환 「고양이의 마음」
내전이 일어난 나라에서 귀국을 위해 피신해 있던 '장 사장'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던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된다.

<예시답안>		
1. ㉡, ㉩	2. ㉫, ㉦	3. ㉤, ㉫
4. ㉧, ㉨	5. ㉠, ㉣	6. ㉥, ㉬

퀴즈 톡톡

이달의 독서퀴즈

키워드 퀴즈 2

책 속 이야기를 살펴보고,
각 책과 관련된 내용을 연결해 보세요.

문제			
	『소리를 삼킨 소년』 부연정 글, 자음과모음, 2021	○ ●	선택적 함묵증
	『오늘도 구르는 중』 김지우 글, 풀빛, 2024	○ ●	뇌병변 장애
	『발버둥치다』 박하령 글, 자음과모음, 2018	○ ●	시각 장애
	『손으로 보는 나의 세계』 가시자키 아카네 글, 작은코도마뱀, 2024	○ ●	코다(CODA, Children of Deaf Adults)

퀴즈 톡톡

이달의 독서퀴즈

키워드 퀴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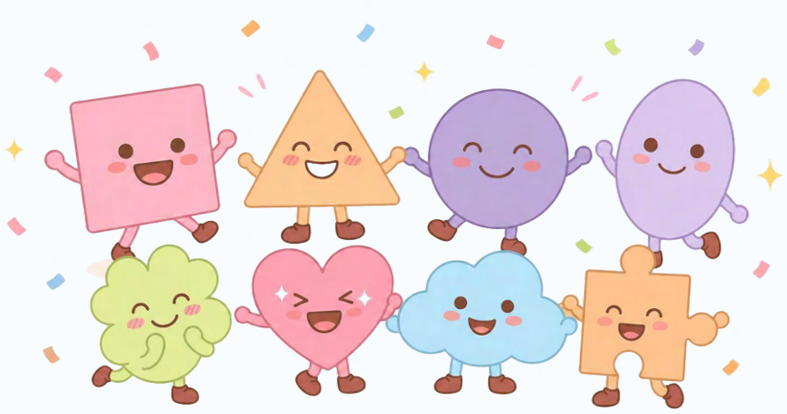
책 속 이야기를 살펴보고,
각 책과 관련된 내용을 연결해 보세요.

정답			
	『소리를 삼킨 소년』 부연정 글, 자음과모음, 2021	○ → ●	선택적 함묵증
	『오늘도 구르는 중』 김지우 글, 풀빛, 2024	○ → ●	뇌병변 장애
	『발버둥치다』 박하령 글, 자음과모음, 2018	○ → ●	시각 장애
	『손으로 보는 나의 세계』 가시자키 아카네 글, 작은코도마뱀, 2024	○ → ●	코다(CODA, Children of Deaf Adults)

경상남도교육청

독서예보 11월호

- 발행일: 2026. 11. 1.
- 발행인: 독서예보 개발진
-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 독서예보에 실린 책 표지 이미지의 저작권은 각 출판사에 있습니다.